

3년차 여는 교육발전특구…해남교육이 달라졌다

2028년까지 100억원 국비 투입 특화교육 등 변화의 바람
해남군 5개 기관 협력 AI·에너지 인재양성 등 지역교육 혁신

3년 차를 여는 해남군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2024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교육 혁신 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연계한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3년 민·관·학이 참여하는 재단법인 해남군교육재단(이사장 명현관)을 발족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끌어내고 특구사업 운영에서도 활동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눈길을 끌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교육발전특구 조성은 해남군과 교육재단, 교육지원청, 해남고·해남공고 등 5개기관이 '해남으로 돌아오는 그린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상호 협력하며 학생·청년·가족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올해 국가AI 컴퓨팅센터와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 등이 확정되면서 관련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재 양성과 정주여건의 개선

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구 컨트롤타워로 AI·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강의 중심의 '대학연계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역대학과 전문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AI 등 관련 분야 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아카데미에서는 해남공고 학생 자격증 취득도 지원해 기능영재 육성의 중심지로 기능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정착을 위한 '그린인재 정주형 취업파키지'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미취업 청년 50명에게 자격증 취득비·면접비·교통비 등으로 정주지원비를 폐기지로 지원하고, 일부 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비도 지원했다. 초·중·고교생 2000여명에게는 찾아가는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존 사업도 확대됐다. 입학축하금 지급을 초등에서 중·고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했고, 학상 외국어 교육도 군민들의 호응속에 참여자가 500명까지 늘어났다.



해남군이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남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을 위한 해남군과 해남공업고등학교 간 협약식 모습. (해남군 제공)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AI·코딩 프로그램 교육과 함께 토요돌봄·아간연장 등 지역공동체 돌봄 빈틈 사업을 신규 추진했으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과 농촌유학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접근성 지원을 강화했다.

해남교육지원청을 통한 유아부터 고교까지 전 생애 교육 혁신 사업도 진행됐다.

유치원·어린이집 간 유보 거점형 돌봄센터와 작은유치원 공동교육과정을 신설해 토요돌봄·돌놀이 캠프·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농어촌 유아교육 격

차를 해소했고, 그린 애코 교실, 영어캠프·창의융합 프로그램 등 해남형 글로벌 공동교육과정으로 17개교 7학급을 매칭해 학교 간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학 박람회·진로연수는 500명, 700명까지 참여를 늘려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지역아동센터·돌봄학교 예산 확대와 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간 한국어 프로그램 신설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도 했다.

지역 고교인 해남고는 글로벌 그린인재 프로젝트로 신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제로 해외연수와 내 고장 탐구 활동을 추진했으며, 해남공고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연계 활동으로 맞춤형 인재양성에 돌입했다. 해남공고는 향후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모아가고 있다.

해남군교육재단 이사장인 명현관 해남군수는 "교육발전특구로 5개 기관이 해남교육발전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됐다"며 "향후 대학 및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해 '교육도시 해남'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 의병장 양달사 영정, 정부표준영정 지정

초상화 권위자 손연칠 화백 제작

영암군이 제작한 의병장 양달사(1518~미상) 영정이 정부표준영정 제105호(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384호)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영암군 제1호 정부표준영정을 보유하게 됐다.

영암군은 지난해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선현 영정 제작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선현 심의 3회, 복식·미술 심의 8회로 구성된 총 11차례의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7개월 만에 지정을 이끌어 냈다.

의병장 양달사 영정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손연칠 화백이 제작했다. 손 화백은 정부표준영정 8점을 제작한 국내 초상화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이번 작품에서도 16세기 인물 심수륜(1534~1589) 등의 묘지 출토 복식 등 다양한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성과 예술성을 높였다.

특히 무과 중시(中試)에 급제하고 뛰어난 활솜

씨를 가졌다는 의병장의 기록에 기반해 손에 활을 움켜쥔 채 화살통을 메고 있는 가로 90cm, 세로 160cm 입상 영정을 내놓았다.

의병장의 안면상은 30여 후손들 사진과 양달사 문현집 등에서 이미지를 추출해 소탈하고 강직한 품성을 담았다.

양달사는 명종 10년인 1555년 5월 11일 전라도를 침입해 10여개 성을 함락한 6000여 왜구를 같은 달 25일 영암성대첩으로 물리친 조선의 의병장이다.

양달사는 현종 13년인 1847년 10월 19일 좌승 지로 추증됐고, 장군의 이야기를 품은 장독샘과 시묘유적은 2019년 8월 22일 영암군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양달사 장군의 영정은 영암 의병의 호국정신과 충효애민 사상을 널리 알리는 상징"이라면서 "원본은 영암군립하정옹미술관에 보관하고, 의병장의 고향인 도포면 봉호리 소재 봉의사에 복사본을 봉안·전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의병장 양달사 영정.

목포시, 갓바위 해상보행교 3월까지 전면 통제

목포시가 갓바위 해상보행교 보수공사를 위해 12일부터 3월까지 약 두 달간 갓바위 해상보행교의 통행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갓바위 해상보행교는 2008년 3월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설치된 연장 298m 규모의 해상 보

행시설로, 연평균 약 44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목포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하지만 2024년 정기 점검 결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부진교 뒤틀림 현상과 주요 부재 손상 등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확인됐다.

목포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12일부터 정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갓바위 해상보행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압해읍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신안군, 압해읍에 공공임대주택 90호 건설

국토부 공모 선정…366억 투입

신안군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주거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인 '전남형 만원주택'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366억 원을 투입해 압해읍에 청년 60호, 신혼부부 30호 등 모두 9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신안군은 이미 사업 대상지 부지를 확보했다.

압해읍은 신안군청 소재지로 행정·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며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등 여가 시설과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

특히 '슬세권(슬리퍼 신고 이용 가능한 생활

권)'으로 불릴 만큼 생활 편의성이 높아 젊은 세대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파격적인 임대 조건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입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소득 창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 선정은 인구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라며 "젊은 층 유입과 정주 인구 유지로 신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